

새만금에 '천보 비엘에스 공장' 착공

이차전지 전해질 공장에 총 5125억원 투자·470여명 고용... 지역상생·지속적 재투자 약속



1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주)천보 비엘에스 전해질 제조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기업인 (주)천보 비엘에스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신원식 전북도정무부지사, 채행석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과 (주)천보 비엘

에스 이장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천보 비엘에스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폼빙 LIFS) 양산화에 성공한 (주)천보의 자회사로, 최근 전기가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주)천보 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71천㎡에 총 5,125억 원을 투자해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먼저, 1단계로 오는 2023년까지 2,18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신규 직원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2단계인 2026년까지 2,940억 원을 투자해 27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주)천보 비엘에스의 새만금 공장에서는 생산할 차세대 전해질은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행거리와 안전성 향상, 수명연장 효과가 있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전기가 보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공정 대비 50%정도 저렴한 혁신적인 제조공법의 설비를 도입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함으로써 높은 시장 점유율 달성이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주)천보 비엘에스 투자를 시작으로, 새만금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뜨겁다"면서 "전세계 이차전지 전해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천보 비엘에스 이장을 대표이사는 "새만금 공장이 가동되면 연매출 1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지닌 회사로 성장할 것이다"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새만금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먹는샘물' 모두 수질 적합

관련 영업장 점검·시중 유통 중 먹는샘물 무작위로 50개 항목 검사

전북도가 지난 3월 도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및 관련 영업장 원수가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밝혔다.

도는 도내에서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전체에 대해 도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번 3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정기점검에서는 ▲등록요건 유지 및 검사장비 확보 상태, ▲품질관리인 적정 선임 여부, ▲제조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실태, ▲작업장 위생관리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도내 대형·소형바트

슈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먹는샘물을 무작위 수거해 수원지 등 표시기준, 유통기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원수와 시중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샘물 50개 전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에도 안전한 먹는샘물 제공을 위해 관련 영업장 허가사항 이행 여부, 원수·제품수질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중 유통 중인 먹는샘물은 분기별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 준비상황 점검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용담댐소양천 재해복구사업장 현장 방문... 정부지자체간 협력 강화 노력 강화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이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14일 진안 용담댐 및 완주 소양천재해복구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 운영상황 및 여름철 호우피해 예방실태를 점검하고, 댐 방류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점검했다.

수공 용담댐지사는 '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으로 유관기관, 지자체 및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회의를 수시 개최해 주민들과 댐운영 상황 공유 및 소통을 확대하고, 댐방류 24시간 전 방류 사전예고를 통해 댐방류로 인한 피해예방 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20년 재해복구사업장 중 공사 중인 완주군 소양천 현장을 방문해 공

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우기철 대비 2차 피해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관리대책 등도 함께 점검했다. 소양천 재해복구사업은 '20.7.28~8.11일 기록적인

호우(누적 강수 588.4mm)로 제방 및 호안 2.61km가 유실돼 758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32.71백만 원(국비)을 투입해 복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21.10월 공사 착공해 현재 14.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6월말까지 교량 및 피해우려지역(수충부 침수 우려구간 등) 우선 시공 및 안전보장을 실시하고, 우기철 도래시 현장상시점검 및 응급복구 장비·자재를 배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은 "20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5.15)에 공무원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지"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신규 공중보건 의사 101명 직무교육·배치

전북도는 14일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2년 신규 공중보건 의사(이하 공보의) 101명(의과43, 치과27, 한의과31)을 공개 추첨을 통해 도내 시·군 보건소 등에 신규 배치했다. 신규 공보의는 3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복무·윤리 교육을 포함

한 직무교육을 받은 후,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공립병원,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돼 3년간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금번 직무교육에서는 특히, 타 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기존 처벌사례와 의약품 리베이트 등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알리고 공공보건 인력으로서 신규 공보의가 지켜야 할 법적의무 및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감염병 대응에 최선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신규 배치인원 중 87%인 88명을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기관

에 배치했고, 등부 산악원 보건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를 집중배치하는 등 전문인력 안배에 주안점을 뒀다.

금번 배치를 통해, 도내에는 신규 인력을 포함, 총 357명의 공보의가 도내 보건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선진 농업기술 배우러 외국서 견학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Le Quoc Thanh 차관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14일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제 농업분야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국 최초로 준공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교육시설(스마트농업교육센터)과 실증연구체의 검증된 운영사례를 소개해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을 알리고

베트남과의 농업교류·협력 및 시장개척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년 11월 전국 최초로 준공돼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및 농생명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확산거점인 것이다. 농업·농촌에 담긴 인구감소, 고령화, 개방화,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청년식품창업센터, 국식클에 조성

전북도, 기공식 개최

전북도는 14일 농식품부, 익산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구축 중에 있는 3개 지원시설 중 하나인 '청년식품창업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2020년에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4월 착공 후 2023년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분야 창업희망자에게 시제품제작 기회와 창업 교육·공간 제공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식품기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도는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이 2단계 확장사업,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 6대 기업지원시설 등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도 관계자들은 이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를 방문해 김연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산단을 점검하며, 전북도를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한층 더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호상 기자

제42회 장애인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참가 대상: 만16세 이상 장애인 누구나
- 참가제외: 전국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가수활동자 제외
- 참가접수: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증명서)(국명, 성명, 전화, 주소 기입, 개인, 그룹 환영)
- 접수방법: 방문, 전화 (063)236-6678, 팩스 (063)237-6676
* 방문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삼로 1, 5층
- 예 선: 2022.06.05.(일) 오전 10시(동남문화광장)
- 본 선: 2022.06.05.(일) 오후 2시(동남문화광장)
- 개회식, 공연, 경연, 행운권 추첨 등

○ 일 시: 2022.06.05.(일) 오전 10시
○ 장 소: 전주 동남문화광장(동남문 옆)
○ 주 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주 관: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전주매일신문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 063-286-6678 ☎ 063-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